

# ‘광주형 일자리’ 최대주주 그린카진흥원 방만 운영

### 불공정 채용·규정에 없는 원장 전용차량 임차 운영 직원 배우자 업체에 행사 용역 맡기고 사업 계약 부실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진흥원이 인사, 회계, 계약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최근 그린카진흥원 운영실태를 점검해 신분상 조치 6건(10명), 환수 2건, 개선 14건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린카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

부에서만 서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합격자 24명 중 6명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학위 구분 표기를 작성 요건에 맞추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등 포괄적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기도 했다. 근태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으며 담당 직무를 대행하는 부장은 규정을 어기고 단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부의 화환과 헌금을 중복 지급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부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원장실엔 고가 카펫을 깔았으며, 규정에 없는 전용 차량을 임차하는 등 원장을 위한 방만한 지출도 지적됐다. 또 원장과 직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직원은 매월 교통비까지 수령했다.

성희롱·부패·갑질 제보 등 상담 공간은 간부의 사무실로 사용됐다. 이와 함께 7000만원 규모 행사 용역을 담당 부서 직

원 배우자 업체에 맡기는가 하면 동일한 사업을 3차례 분할 계약하거나 1인 수의 계약에서 가격 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린카진흥원은 21일 인사위,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정찬 원장에 대한 인사 조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를 대리해 483억원을 투자한 1대 주주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시민총회 10대 예비의제 선정 시민투표 거쳐 3개로 압축

주민 참여형 시정 민주주의 모델인 광주 시민총회에 올릴 3대 의제를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민 권의 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를 통해 접수된 71개 제안 가운데 10대 예비의제를 선정했다.

기후 위기 대응,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 확대, 마을 문화공간 조성, 자동차 중독 탈피, 공원 매너 실천, 쓰레기 매립장 줄이기, 재난 극복 캠페인, 여성 안전, 기후 위기 시대 자전거 활용, 밥상머리 교육 등 관련 내용이다.

의제들은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3개로 추려져 다음 달 12일 열리는 ‘2020 광주 시민총회’에서 숙의, 토론, 투표를 통해 광주공동체 실천을 위한 최종 의제가 선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바로 소통 광주’에서, 오프라인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주민 원탁 토론회 20일 오후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주민참여 원탁토론회'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어린이와 주민들이 4가지 아동의 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공모 선정

국비 51억원 확보...2023년까지 SW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전남도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1억원을 확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지역산업계를 대상으로 최신기술에 대한 SW(인공지능, 블록체인)교육을 확산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4차

이 가운데 교육과정의 경우 기본, 심화, 지역특화 등 3가지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 특화과정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전략사업과 연관된 지역업체와 제휴를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호남권 특화 인재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복합교육관은 AI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구축된 ‘전문교육장’과 함께 개발자·재직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ICT플랫폼’으로 구성된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 350

평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 70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관인 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말부터 복합교육관 공간조성에 착수한다. 또 인공지능·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모집에 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명칭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정된 사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디지털 분야 핵심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게 된다”며 “지역 청년들의 미래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계의 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22기 구축

### 여수산단에 2호 가동 국내 최초 원스톱 시스템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모두 22기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하이넷 SPG 여수수소충전소가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개소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이넷 SPG 여수수소충전소는 전남지역이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에 진입하고 수소경제 개막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충전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이넷은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총 30억원을 투자해 구축했으며, 충전소는 (주)SPG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하는 국내 최초 원스톱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시간당 28kg을 충전할 수 있어 수소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전남도는 이미 구축된 장성휴게소와 이번에 구축된 여수를 시작으로 수소경제의 대표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오는 2030년까지 총 22기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광양, 함평 등에 4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내년 말이면 총 6기의 수소충전소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 올해 보급 예정인 수소승용차 108대를 포함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1만1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추어 수소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중인 전라남도는 부생수소 생산능력, 해상풍력 잠재량 등을 토대로 권역별 그린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 전남을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한편 8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총 377기가 구축돼 있으며, 울산이 6기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경남 각 4기, 광주·충북 각 3기, 전남·전북·부산 각 2기 등 순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도교육청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운영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전남농촌융복합센터가 협업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20일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학생 가정에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를 공급하게 된다.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는 초등학교 이 가정 또는 학교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초등학교 체험학습이 중단됨에 따라 이들 학생에게 안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전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교육청이 매년 초등학교에 배정한 체험학습 예산을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와 연계해 추진하는 체험학습으로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우리밀케이크·피자·쿠키 만들기 등 체험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박스는 개당 5000원~1만6000원으로 포장비와 택배비 등 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며, 전남 농촌융복합(6차산업) 센터에서는 체험학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학습안내 동영상 ‘전남6차산업센터’ 누리집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20개 시·군 50개 초등학교에서 체험박스 7600개를 신청했으며, 6차산업 인증경영체 중 체험이 가능한 인증경영체 8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도민감사관 150명 공개 모집

전남도가 제9기 도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9일까지로 인원은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위원수를 정해 총 150명 내외로 위촉할 계획이다. 인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재직했거나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자를 비롯 감사에 관련 식견이 풍부한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도 및 시·군 감사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도민 생활 불편사항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지역 현안사업 등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도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